

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배포일자 2022년 3월 22일(화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 안전정책과	담당자 • 안전교육팀장 김문성 ☎440-1891 • 담당자 홍하나 ☎440-1893	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UN에서 인증받은 국제안전도시 경험 세계에 알린다

- 22일, 아시아 최초 ‘UNDRR 복원력 허브 인증’ 현판식 개최 -

- 인천의 재난과 기후변화 해결 노력 세계에 알리고, 국제협력 이끌 것 -

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1월 아시아 최초, 세계에서 6번째로 ‘UNDRR* (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) 복원력 허브 인증’ 받은 국제안전도시 인천을 홍보하기 위해 22일 시청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* UNDRR(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) :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

이날 행사에는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산자야 바티아 UNDRR 동북아시아사무소 소장, 신은호 인천시의회 위장,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.

‘복원력 허브’는 재난위험경감에서 타 도시의 모범이 되고, 재난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헌신하기로 약속한 도시를 뜻한다.

UNDRR은 2010년부터 “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(MCR2030캠페인**)”을 추진해오고 있으며, 인천시는 2013년도에 이미 캠페인에 가입했으며, 지난해 말 재난경감 노력을 인정받아 복원

력 허브로 인증 받았다.

** MCR2030 캠페인(Making Cities Resilient Campaign) : 2030년까지 안전하고
복원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UN운동

인천시는 지난해 1월 국내 최초 UNDRR 롤모델도시 인증을 계기로
유엔과 협력하며, 국제수준의 안전도시 조성 및 재난안전 분야 국제리
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.

앞으로도 시는 세계 여러 도시에 복원력 경험 전파 및 기술·자금 지
원, 국제행사 개최 및 스터디 투어 조직, 연간보고서 제출 등 복원력
허브 의무사항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
이렇게 되면 인천시는 다른 도시들의 재난복원력 향상에 기여하고 재
난위험경감 선도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안영규 행정부시장은 “안전분야에 대한 국제협력과 공조를 이끌어 내
고 복원력 허브 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제안전도시로서의
위상을 높여 나가겠다.” 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6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<이미지> UNDRR 복원력 허브 인증서

(UNDRR 복원력 허브 인증서)

